

후계낙농인 위한 교육에 역점 둘 것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

“낙농 2세들이 향후 낙농산업을 선도해나갈 수 있도록 교육과 학습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분과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지난 5월 협회 청년분과위원장으로 추대된 이용욱 위원장은 후계낙농인들의 어려움이라면 발 벗고 뛰어나니느라 여념이 없다. 6월 18일 충북농업기술원에서 개최된 여성낙농인 홍보요원화 교육에도 참석해 우유홍보요원화 교육을 받고 있는 여성낙농인들을 격려했다. 이용욱 청년분과위원장을 만나 청년분과위원회 운영과 미래 낙농업에 대해 들어봤다.

“낙농가 스스로 원유 공급과잉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고 우유소비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우유를 생산해 소비를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유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원유가 인상이나 정책 개발 및 건의 등 투쟁만하는 청년분과위원회가 아니라, 낙농 2세(후계자)들을 위해 꾸준히 교육과 학습의 기회를 마련하여 미래 낙농산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장은 청년분과위원회가 투쟁만을 하는 분과위원회로 농가들한테 보일까봐 내심 우려하고 있었던 모양이었다. 그는 이러한 시선을 의식한 듯 “농가들의 생존권을 위한 투쟁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지만, 미래세대를 위해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공부하는 청년분과위원회를 만들어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그 첫 번째로 오는 7월 3일 1박 2일로 청년분과위원회 워크숍을 마련했다. 낙농정책연구소의 조석진 소장 등 낙농업 전문가들을 초빙해 국내 낙농산업 전반에 대해 강의 듣고 각 도별로 분임토론을 가질 계획이다. 이용욱 위원장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친목활동만 하는 워크숍이 아니라, 향후

미래를 준비하는 진지하고 의미 있는 기회로 만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원유 공급과잉으로 인해 원유가 협상 문제 및 농가 자구책 마련에 여념이 없는 이 위원장은 “이제 우리 낙농가들도 원유가격이 인하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물론 그럴 일은 없어야 하지만, 소비는 안되면서 우유 체화가 지속 될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것.

“낙농가 스스로 원유 공급과잉에 대해 협회를 중심으로 자구책을 마련해 실천해 나가고 우유소비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우유를 생산해 소비를 촉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원유가격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현재 농가들이 원유 공급과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생산 조절은 가능하지만 우유소비의 감소는 쉽게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농가들도 적극적으로 우유홍보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